



대한민국 건축50년을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건축
 미래50년을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1965.10.23 창립)



시론 _ 02

건축사의 역할 _ 전병갑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건축계 뉴스 _ 03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전남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선정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호남권에서 대상, 본상 선정
 광주 나무심는 건축인, 201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당선작 발표

설계경기 _ 04 ~ 05

목포대학교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재배치공사 설계공모
 목포 청호중학교 교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광주디자인비엔날레 _ 06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神明)" 30일간의 대장정 시작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작품 전시

사람&issue _ 07

기도하는 건축사!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장 한형민 건축사와의 만남

대학뉴스 _ 08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대학 축제를 즐기는 방법 _ 구조를 기반으로 한 풀리를 만나다

NEWS _ 09 ~ 10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간 저작권 위반분쟁에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광주서 친선교류전 가져
 국가건축정책위, 전남에서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0월 초~11월 초 주요 일정 안내



기도하는 건축사!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장 한형민 건축사와의 만남 _ 07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받아 _ 08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광역시장 표창 받아 _ 09
 가을날의 환희(전남 보성군 응치) _ 11

건축사의 역할



전병갑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널리 알려진 것처럼 '건축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위대한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신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처는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조성된 공간에서 인간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건축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는 물론이요, 사회적 또는 문화적 활동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삶과 행위가 건축공간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쇼핑몰, 공연장, 체육관, 공장, 창고 등이 그러한 건축공간의 몇몇 예이다.

건축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이처럼 사람의 삶속에서 건축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기능에 적합한 공간,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 환경과 조화되는 공간, 경제성을 고려한 공간, 인간의 체형과 행동치수를 고려하여 사용이 편리한 공간, 사회적 활동을 고려한 공간,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공간 등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노력은 결국, 건축주에게는 가치 있는 소유물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으며, 도시적으로는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성체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축은 공학과 과학, 예술과 인문학, 과거와 현재와 미래, 철학과 사회 등 모든 섭리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바로 그러한 행위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있는 사람이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걸맞게 조화로운 구조물을 빚어내는 조형예술가,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건축주의 요구와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창조자, 건축과 건축의 연계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도시를 완성시켜 나가는 공간계획가 등의 총칭이 건축사인 것이다.

즉, 건축사는 도시와 건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최고의 전문가이며,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지휘봉을 흔들며 관계되는 각 분야를 조율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축사의 역할이자, 건축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다.

따라서 건축사는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 지휘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불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새롭게 각광받는 학문과 문화를 익히기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예술적 감각은 꾸준히 정진하여야 할 것이고, 근래에 각광받는 인문학과 도시재생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학이 필요할 것이다.

통합과 융합의 시대

현시대의 핵심적인 건축이야기 중 하나는 통합과 융합을 기초로 하는 패러다임이다.

지금까지의 건축은 다른 분야의 모든 것을 건축 안으로 흡수하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은 그것들을 세분화하여 분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개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시공자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건축적인 예술의 창조와 건축적 기법에 기인한 기술 등에서 많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건축분야의 통합이 아닌가 싶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건축주와 시공자 그 모든 것을 건축 안으로 유기적인 매개체를 형성하여 이끌어 간다.

건축사의 주도로 각 분야의 요구와 관계자들의 생각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건축적으로 해석한다면 융합이라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건축계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시점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건축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라북도건축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들어갔던 때가 어느덧 1년이 다되어간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이 건축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이었다.

건축사의 대표이자 리더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같은 건축사 입장에서 건축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했다.

회장도 건축사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었다. 회원의 눈높이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를 이끌어 가야겠다는 포부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꿈과 생각으로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축사의 소통과 통합 및 융합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질서를 재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감리의 분리라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점에 있다는 점도 검토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건축사회라는 조직 내에서 설계와 감리 분리제도를 논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공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지난 1년여를 보내며 되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감회가 새롭다. 아픈 만큼 성숙하듯이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정립되었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찾아냈으며,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이제는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진하는 일이 남았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기대해 본다.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는 불안해지고, 경제적 여건은 악화되어가며, 책임은 한없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가 기울면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듯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설령 지금은 쓰러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배가 정상으로 복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 배에 탄 사람들은 공동 운명체인 것이다.

건축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에는 이견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해야하고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조직력을 갖춘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일도 적지 않다. 협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할 이이다.

ONE DAY SOLUTION SCHOOL

2015년 하반기, MODS 고객만을 위한 특별교육에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midas eGen DS & midas Drawing DS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데이 솔루션 스쿨을 통해 제품 활용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 SESSION 1 [midas eGen DS]
실무 적용사례 따라하기를 통한 프로그램 실전 가이드
- SESSION 2 [midas Drawing DS]
실무 노하우 안내 및 CAD 활용가이드

10/27 고양 일산킨텍스

10/15 인천 베스트웨스턴인천 로얄호텔

10/29 경북 서울테크노파크

11/10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11/17 청주 청주문화산업단지

11/3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11/5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8 강남 비컨벤션센터

11/19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수원

10/13 원주 호텔인터플고 원주

12/3 대구 엑스코

12/1 울산

11/12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12/10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장소는 주최측 사정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계 Hot 소식

- ①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② 전남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에 선정

- ③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호남권에서 대상, 본상 나와
- ④ 광주 나무심는 건축인, 201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당선작 발표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입법예고안	개정안
대상 용도	21개	12개
건축법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안전 심의 - 책임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통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통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②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인접 대지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③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대

현재 건축법상 1천㎡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백에서 1천㎡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1천 이상 건축물 5.8%)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도 커, 건축물 연면적 1천㎡→5백㎡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 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남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에 선정

- 국무총리상 수상, 문화건강센터 조성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높이 평가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이 순천시문화건강센터를 조성한 순천시에 돌아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그 성과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지난 9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전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6월말까지 접수된 총 34건의 작품에 대해 지난 2개월간 심사한 결과 총 9개 작품이 국무총리상(1점), 국토교통부장관상(3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5점)의 수상작으로 결정됐고 밝혔다.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조성한 순천시에 돌아갔다.

문화건강센터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이 돋보였으며,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구도심 내에 조성하면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건축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호남 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올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사업 내용이다.

구분	수여기관(자)	사업명
국무총리상	순천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국토교통부장관상	인천광역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국책연구단지
	서울시 관악구청 건축과	관악구 도시보건지소
	한국도로공사 시설처 건축팀 김희영	서부산들게이트
	광주광역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호남권에서 대상, 본상 나와

- 대상에 전주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본상에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조병욱 건축사 (주)서아키텍스 건축사사무소)



▲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정영균 건축사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작품 시상 부문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 작품이 발표됐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가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민간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이 사회공공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는 지난 4월 세계적인 건축 웹진 아키텍처(Architizer)가 주최하는 2015 A+ Award의 팬 투표 부문에서 최종 선정돼 해외에서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주목 받은 바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강남지구 A4블록 공동주택'과 '부산 S주택'이 각각 공동주택 부문, 일반주택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각각 대통령상이 주어진다. 또 국무총리상을 받는 본상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사회공공 부문), 다음 스페이스닷키즈(민간 부문), 대신 센트럴하이 아파트(공동주택 부문), 동탄 갯마을 패시브하우스(일반주택 부문) 4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전력거래소 사옥은 한국 전통가옥의 우수성과 최신 건축기술을 접목한 창의·혁신적으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한전KPS주식회사 본사 신사옥, 함안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춘천 네이버 지식 정보 캠퍼스, 에이치케이 사창리 공장,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연수원, 세종 힐스테이트 등 15개 작품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11월 13일까지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광주 나무심는 건축인, 201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당선작 발표

- 공공부문_아시아문화전당, 일반부문_(주)오이솔루션, APT부문_수완이시아파트 선정



광주광역시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공부문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일반부문에 (주)오이솔루션, APT부문에 '수완이시아파트'를 선정했다. 당선된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하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주)오이솔루션은 담장주변을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완 이지 아파트는 내부 조경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목포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열람 및 서고 공간 등에 대한 공간 확보 및 기존 도서관 시설의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해양시대 지역거점대학에 어울리는 다양한 기능의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함.
 발 주 처 : 목포대학교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 : 유창균, 김경규, 홍병열, 최천호, 정주성, 이재홍, 최만진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우수작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임태형 건축사
 손두호 건축사

목포대학교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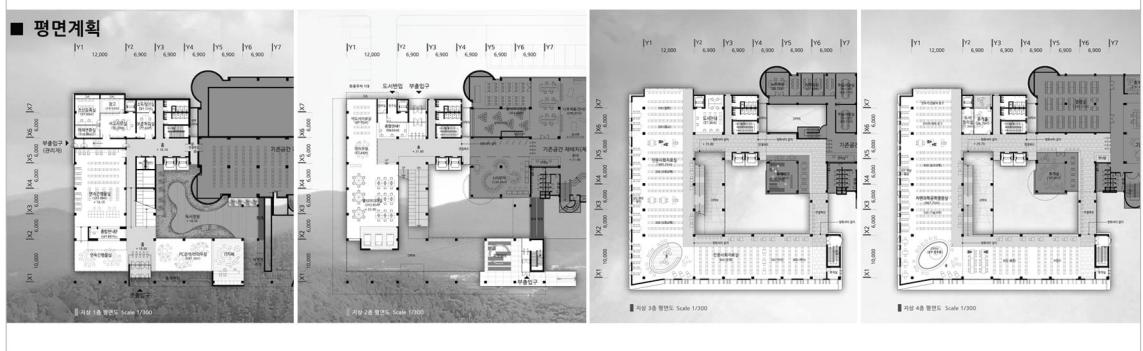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번지
 대지면적 : 618,539㎡
 건축면적 : 1,630.24㎡
 연 면 적 : 4,564.50㎡
 건 폐 율 : 0.26%(전체:10.01%)

용 적 륜 : 0.74%(전체:30.98%)
 규 모 :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THK24로이복층유리
 고밀도록재패널

당선작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재배치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학교 건축물의 기능과 더불어 4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갖은 학교의 주변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독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인 양질의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함.
 발 주 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 : 문창호, 박상민, 신용재, 최왕돈, 조철호, 진경일, 신석균, 김순철, 윤준선

당선작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조영돈 건축사
 이주경 건축사
 박동준 건축사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재배치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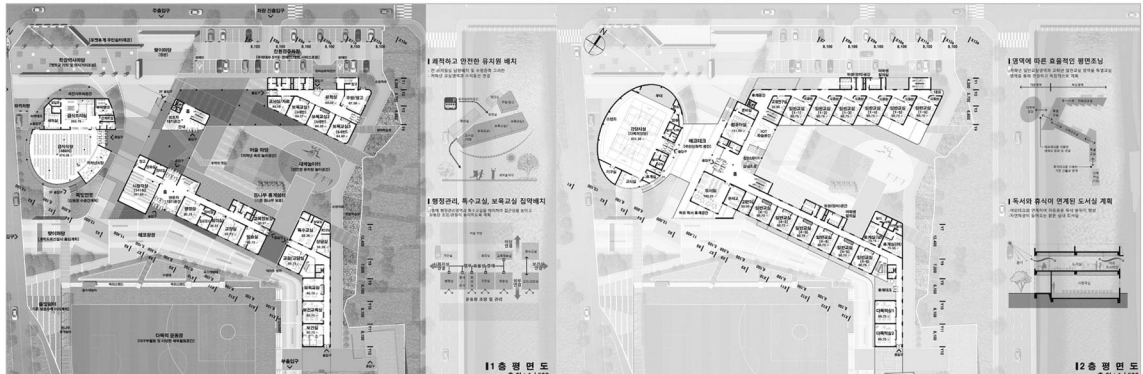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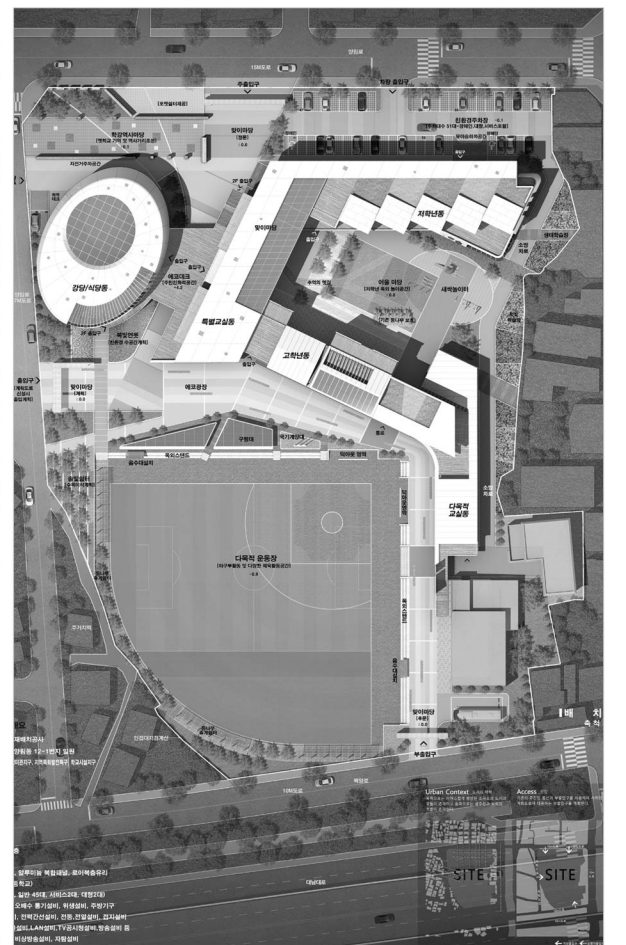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12-1번지
 대지면적 : 21,834.80㎡
 건축면적 : 4,142.85㎡
 연 면 적 : 10,214.73㎡
 건 폐 율 : 18.97%

용 적 륜 : 45.34%
 구 조 :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조
 고벽돌, 목재패널, 알루미늄복합패널,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조영돈 건축사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 교육청은 목포 용해 2지구와 백련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원도심과 이설학교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목포 청호중학교 이설 추진을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창의성 및 예술성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함.
 발 주 처 : 전라남도 교육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심사위원 : 이상준, 손승광, 양화진, 조순호, 문창호, 남해경, 최병관, 김근성, 김봉주

당선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박재형 건축사
 우수작 : (주)디자인그룹 금성 건축사사무소 오종열, 한종언, 정해상 건축사

목포 청호중학교 교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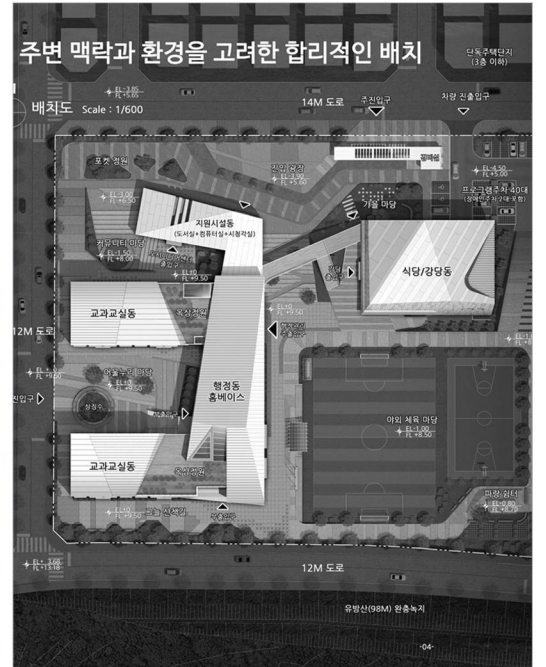


위 치 :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84번지
 대지면적 : 14,156.60㎡
 건축면적 : 3,680.21㎡
 연 면 적 : 9,466.32㎡
 건 폐 율 : 26.00%

용 적 륜 : 66.87%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금속패널, THK24로이복층유리
 치장벽돌, 목재패널

당선작

양병범, 박재형 건축사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변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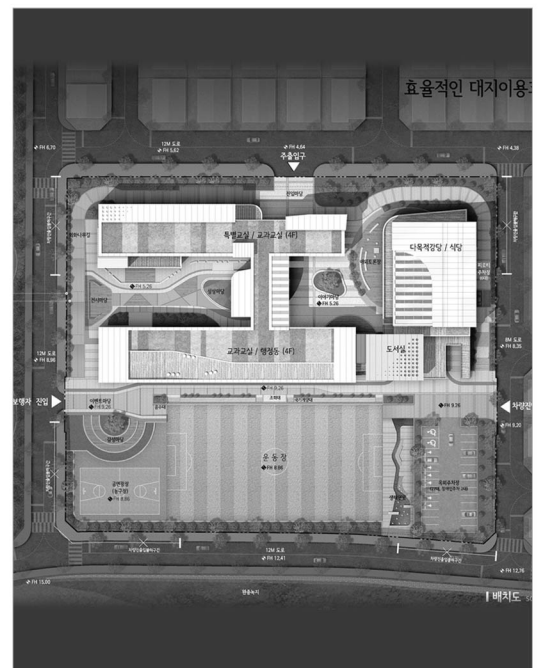


위 치 :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84번지
 대지면적 : 14,156.60㎡
 건축면적 : 3,872.93㎡
 연 면 적 : 9,622.28㎡
 건 폐 율 : 27.36%

용 적 륜 : 67.97%
 규 모 :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 점토벽돌, 화강석마감,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우수작

오종열, 한종언, 정해상 건축사 (주)디자인그룹 금성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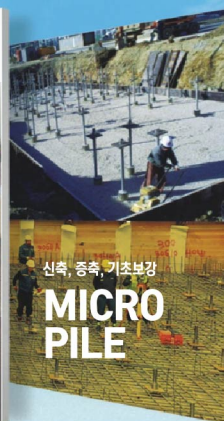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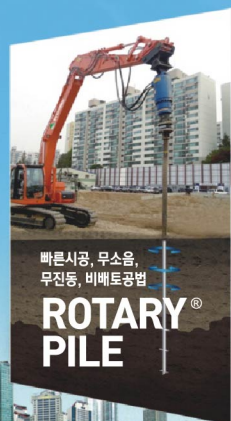


효율적인 대지이용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BS New, Different, Better
반석기초이앤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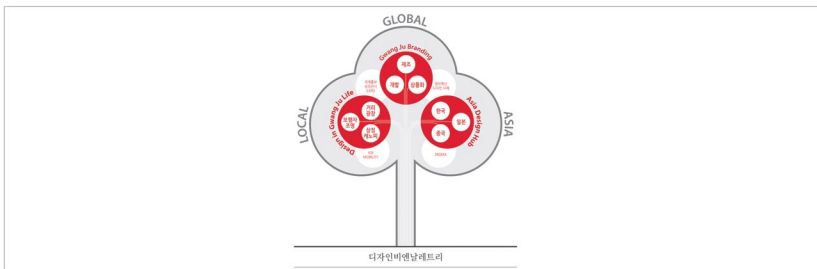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晨明)” 30일간의 대장정 시작

- 오는 10월 15일 개막해 11월 13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진행 /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작품,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될 예정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15일에 개막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1월 13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2005년을 시작으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주관기관이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광주디자인센터로 이관되어 열리는 첫 행사인 만큼 지역민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구성으로 전시가 진행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제 :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晨明)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디자인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할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관람자 스스로 재발견 할 수 있도록 체험의 모든 과정을 디자인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동서가치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어울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디자인을 나눔으로서 시대에 걸맞는 소통 방식을 터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에너지임을 깨닫는 것, 이와 더불어 친근하고 유쾌한 디자인이야말로 기술이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을, 대중에게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닫는 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감독 : 최경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장)



한·중·일 국제디자인퍼포먼스를 주최하였고 UNE SCO 주최의 나고야국제디자인센터(Indc)국제포럼 디렉터, World Creative Cities Forum in Kanazawa 2010,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 프랑스 Saint-Etienne에 세계포럼에 초청강연, Tokyo Designer's week panel 및 심사위원, 디자인단체 총연합회와 산업자원부 공동주최 세계디자인 정책포럼 World Design Policy Forum의 준비위원장으로 활동 하였다. 국민대학교의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서 다년간 한중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문화중심 디자인의 디자이너이다.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문화기반디자인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디자인에 현실적응 가능하도록 활용 연구를 통한 통섭적인 디자인 기획 및 개발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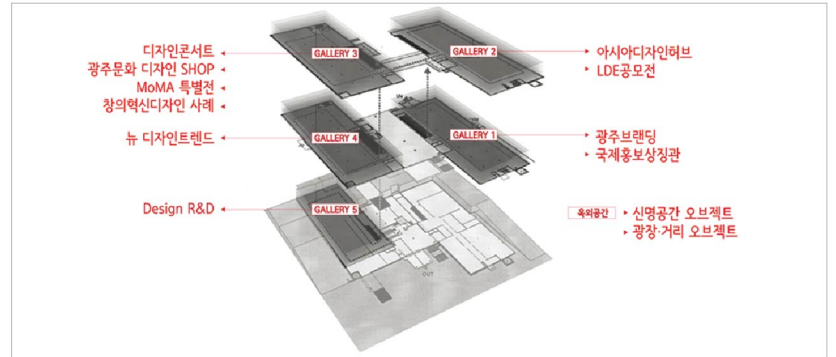
전시구성과 전략

·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이라는 주제는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첫 번째 테마(주제전)는 동서가치융합의 신명을 키워드로 하는 ‘광주 지역 브랜드 업그레이드(Gwang Ju Branding)전’이며, 두 번째 테마(본전시)는 ‘유쾌한 디자인 나눔’을 키워드로 세미나, 담론, 발표, 파티가 함께하는 전문가만이 아닌 대중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사와 이해의 대전환을 꾀하는 ‘디자인콘서트’와 ‘광주문화디자인샵’이 구성되고, 세 번째 테마(본전시)는 지속불가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을 소개하고 창의혁신디자인사례가 함께 구성되는 ‘디자인 R&D’전, 네 번째 테마(본전시)는 ‘한중일 문화 가치’를 키워드로 동아시아의 디자인 그루가 큐레이터로 참여하는 ‘아시아 디자인 허브(Asia Design Hub)전’이다. 더불어 행사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전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개의 특별 전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현시대의 ‘뉴디자인트렌드’를 소개하는 ‘New Italian Design 2.0’전, 두 번째는 MOMA와 함께 유쾌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전시하며, 세 번째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모전 결과물 전시, 네 번째는 국내외 디자인 기업들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Exhibition	Program	Gallery
동서가치의 융합신명	광주브랜딩 국제홍보상징관	GALLERY 1
한중일의 문화가치	아시아 디자인 허브	GALLERY 2
특별전	LED 공모전	GALLERY 2
	MOMA 특별전	GALLERY 3
디지털 일상의 나눔	창의혁신디자인 사례	GALLERY 3
	디자인콘서트	
뉴 디자인트렌드	광주문화디자인SHOP	GALLERY 3
지속가능한 미래	뉴 이탈리아 디자인	GALLERY 4
	Design R&D	GALLERY 5
옥외공간	신명공간 오브젝트	광주도심지역
	광장거리 오브젝트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작품도 전시



▲ 이토 토요이토 토요 건축설계사무소(대표이사)

- 2013년 프리츠커상
- 2006년 왕립영국건축가협회 금메달
- 2005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커미셔너
- 2004년 황금곰파사상 경력
- 2002년 타마미술대학교 미술학부 객원교수

다양한 전시 구성 중 옥외 공간에 신명공간 오브젝트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의 작품이 비엔날레 전시를 전면 광장에 설치된다. 이 작품에 공간은 주제관 1층 전시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고 그 공간자체가 또 하나의 신명의 전시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장권 요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8월 말부터 예매입장권 판매를 본격 개시했으며 사전예매를 했을 경우 30% 정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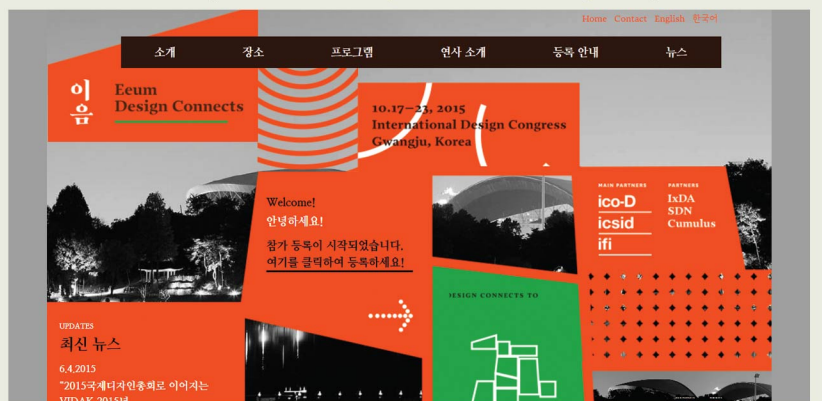
예매 입장권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인 10월 14일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 티켓정보란을 통해 판매된다.

(단위:원)

구분	기준요금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보통권	10,000	6,000	4,000	· 1일 관람권 ·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권	8,000	5,000	3,000	
특별할인	4,000	2,000	1,000	· 만 65세 이상자 · 4급이하 장애인 및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하사 이하 현역군인 및 전·의경 · ※ 문화누리카드 결제

자세한 사항 및 안내 :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db.or.kr) 참고

2015 국제디자인총회 오는 10월 17일 광주에서 개막 - 전 세계 70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참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더불어 세계최대규모로 진행될 2015 국제디자인총회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이음(Design Connects)’이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70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참가하는 이번 총회는 올해 초 조직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성공적인 디자인총회 개최를 위해 분야별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총회 프로그램은 ‘디자인과 함께하는 미래’와 ‘디자인의 미래와 디자인 인큐베이션’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비롯해 통합 세션, 분과 세션, 광주 도시문화 디자인 정상회의,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구성됐다. 또 단체별 총회, 개·폐회식 행사, 디자인 도시 광주탐방과 문화 특별행사, 학생·교사·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인 디자인총회인 만큼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시될 것으로 보여 건축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2015 국제디자인총회 홈페이지(http://www.2015idc.org)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기도하는 건축사!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장 한형민 건축사와의 만남

올해 초 순천지역건축사회장으로 취임한 한형민 건축사를 지난 9월 23일 본지 편집위원들이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항간에 이슈가 되었던 행정소송의 건축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이야기와 지역회장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다. 한형민 건축사는 현재 법사랑 운영위원, 기독교실업인회 위원, 로타리 회원, 라이온스 회원 등에 활발히 활동 중이며 법무부 장관 표창과 광주지검장 표창, 순천지청장 표창, 법사랑 회장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라남도청의 무더기 건축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승소로 진행되기까지 순천 지역 회장으로서... 그리고 건축사들에게

2013년 12월 40여명의 건축사를 징계한 어느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식의 전형적인 갑질의 표정, 담배를 꺼내 물고 불쾌한 연기를 뿜으며, 공권력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세와 언어를 듣고 보고, 그 한사람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의 모든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렇게 오만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경제 살리기, 규제 개혁, 상생협력 등, 정부에서는 연일 변화와 창조 경제를 외치지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공무원이 역행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려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가 국민을 아프게 합니다.", "이거야니면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라며 기도했고,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이 소송이 옳은 판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길 밖에 없었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절했던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 몇 개월 후, 1심에서 1명 빼고 전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서로 상처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 공무원이 용서를 구하기도 해서 다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여론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호루라기를 불어주어야 한다는 국가의 부탁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건축사는 국가자원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경제력은 이제 고환율, 저금리, 재정확대의 차원을 넘어,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건축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사의 일은 역사가 평가합니다. 우리의 설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후세에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산과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공무원이 건축사를 범죄인 다루듯, 아래 사람 다루듯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울분이 솟습니다. 90년도 초, 제가 건축사 시험을 볼 때 만해도 5급 공무원의 능력과 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사의 길을 택한 것은, 자원이 없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세계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경제발전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자부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시로 변화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 하고 있는데, 국민과 공권력이 서로 의지하고 단합하지는 못할 망정 분열하고 반목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돌려 세계를 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 시급한 대체에너지, 급속한 다민족 사회,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시대, 청춘 7포 시대, 경제 살리기, 각종 개혁 등등에 대한 대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하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 건축사들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과 혁신의 선봉"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길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어릴 적 서울에 살다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 순천에 내려오게 되었고, 거주할 한옥을 짓는 과정에서 중학생이었던 제가 공간의 배치에 대해 관여했었습니다. 나중에 건축공부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릴적 저의 공간 배치가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건축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체육관 운영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버님의 권유로 건축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유훈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봅니다.

건축사로서 확립하신 건축철학

건축사들은 사람이 중심 되는 그 무언가를 완성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이끄는 사람! 즉, 세상의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원이 없는 나라에 문화유산을 남긴다는 사명감! 이것이 저의 건축철학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입니다. 그는 목동출신이면서도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하지요, 이유는 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 유산이지요.

또 한사람은 존경이라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건축가인데 일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빛"과 함께 하는 건축이라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검도를 해왔는데, 권투선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의 작품을 좋아 합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벌써 일년이 훌쩍 지났는데, 세월호 사고로 많은 유족들이 고통 중에 있는 동안, 제가 설계한 체육관이 다소나마 슬픔을 달래는 장소로 사용되고 또 거기서 봉사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지요, 가슴 아프면서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순천지역건축사회장으로서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순천지역건축사회장으로서 그리고 건축사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각계각층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하여, 우리 건축사 후배들이 손쉽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후배 건축사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취재: 이광영 건축사기자 / 정리: 광승국 전담기자 gikira@empas.com



전남 순천/예향 건축사사무소 한형민 건축사



▲ 지난 9월 23일 한형민 건축사와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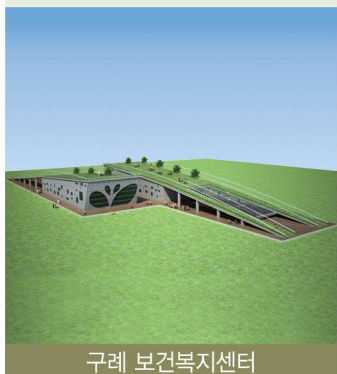


▲ 노인요양병원(서면노인봉사) 봉사활동



▲ 노인봉사활동

한형민 건축사 작품



구례 보건복지센터



공공체육시설



목포 한옥마을



구례 국립립보육시설



완도 문화전시시설(감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받아

- 지난 10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건축의 날' 행사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건축의 날' 행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작년 11월 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효원 교수는 오는 10월 15일 개막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지속 가능한 미래-디자인 R&D'관 큐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문화역 서울284'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참여작가로 선정돼 설계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학생기고>

대학 축제를 즐기는 방법_구조를 기반으로 한 풀리를 만든다



▲ 전남대학교 공대 2호관 공원 앞에서

최근 대학과 각 지역에서 축제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공연 관람, 친구들과 대화, 연인을 데이트, 선후배의 친목도모 등 사람들마다 즐기는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축제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을 해보려고 기획했던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축제기간에 맞춰서 선, 후배와 함께 설치미술이 아닌 구조를 기반으로 한 풀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풀리는 마당(정원) 등에 짓는 장식용 건축물(조형물)이며,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이동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도 있다. 또한 풀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 지역 일대의 오브제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도 한다. 한편으로 각각의 풀리들은 작가의 생각이나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 보며, 풀리에 대한 형태, 기능, 미 등을 고려하고 계획부터 제작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풀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들이 풀리 주변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위로 띄우고, 일정 구역을 중심으로 중간에 기둥 및 직접 들어가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재료의 성질, 특성을 파악할수록 처음에 계획한 구조를 기반으로 계획한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디자인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험이였다. 하지만 부족한 사전 준비와 미비한 계획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료의 특성 등으로 시행착오가 거듭되었다. 결국 더욱 좋은 결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점이 지금도 못내 아쉽다. 그래도 성과는 크다. 특히 순간의 아이디어와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스러운 배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정신과 경험이 남았다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건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각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 내가 의도한 형태와 기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가거나, 왜? 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형태, 이유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형태, 기능, 미 등 한 가지에 치우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보편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만들어보고 느끼면서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착오를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이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진석 학생 wlstjr382@naver.com

사랑에서_열하나

막장드라마와 권선징악

뻘한 스토리와 비현실적인 전개 등으로 좀처럼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다가, 건축과 건축사를 소재로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모처럼 TV 앞에 앉았다. 왜곡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건축행위가 소개되고 건축사가 등장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여느 드라마와 다를 바 없었다. 뻘한 스토리와 비현실적인 전개 그리고 지극적인 상황설정은 여전했다. 내친김에 다른 드라마도 설렘설렘이나마 훑어봤더니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막장드라마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이 실감났다.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갈수록 악랄해지는 갑질, 동물이나 다름없이 잔인한 약육강식, 돈이면 다 되는 황금만능주의, 남의 권리와 행복을 빼앗는 이기적인 권모술수의 난무, 가정을 파탄시키고 생명마저 위협하는 패륜행위... 이처럼 막장드라마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장드라마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권선징악을 외면하고 만다. 그래서 대부분 악역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연출된다. 반면에 선의와 선행은 천대받고 핍박받기 일쑤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야 간신히 권선징악을 표방하며 결말을 맺는다.

그런데 문득 막장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장드라마에 등장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어 소름이 돋았다. 그나마 막장드라마는 권선징악을 교훈으로 남기고 막을 내리지만, 우리의 현실은 종영을 할 수 없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악역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 권선징악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까?

건축계에서의 권선징악은 해법을 찾지 못한 숙제와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약간의 과정과 연출이 가미되었겠지만, 악의와 악행이 선의와 선행을 짓누르고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명예와 부를 얻은 건축인도 적지 않고, 명예와 부를 쫓아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해 버린 건축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건축계의 현실인 것이다. 것처럼 악역을 일삼는 건축인들이 건재하고 때로는 명명거라다보니, 심지어는 불법과 편법 등 악행도 능력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작게는 선량한 건축인들이 무능력한 피해자로 전락해 버렸고, 크게는 모든 국민과 국토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득 나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만약 나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라면, 시청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악한 사람으로 보일까? 선한 사람으로 보일까?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혹은 나쁜 놈이나 더러운 놈 심하게는 죽일 놈이라 지탄을 받고 있는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다.

권선징악이 실현될 때 시청자들은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와 당신 더 나아가 우리는,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선인가? 중요하고 경멸하는 악인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 서재형 편집인_archiseo@nate.com >

건축사 만평



넘어야 할 산은 높은데 넘으려는 의지는 있는지?

심상봉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주건축사회 실무교육 광고]

- 2015 광주건축사 실무교육_윤리교육 개설 안내 -

- 강의일시 : 2015. 11. 6(금) 오후 4시
- 강의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204호
- 강 사 :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
- 강의주제 :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
- 대 상 : 광주건축사회 전회원
- 강의신청 기간 : 2015. 10. 16(금) 오전 9시 부터
- 수강신청 사이트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
- 기타사항 : 윤리교육에 앞서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심포지엄 유결 건축가의 강화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강사 박구용 교수

- 학 력
 - 전주고등학교
 - 전남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졸 (학위:문학사)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 현 직
 -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학과장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소장
 - 사회와철학연구회 편집위원장
 - 법한철학회 총무이사
- 주요 경력
 - 한국철학회 감사
 - 사회와철학연구회 연구윤리위원장
 - 전남대학교 교무부처장
 - 전남대학교 학무정책실장
 - 518기념재단 이사 및 기획위원장
 -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컬럼리스트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광역시 표창 받아

- 지난 10월 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심으로 광주 발전에 기여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이 지난 10월 5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시 10월 공감회의'에서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정명철 회장은 평소에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지난 6월 경 광주 남구청과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월산동의 한 주택을 선정하여 9월 경, 옥상보수와 벽면 페인트칠, 옥외 계단보수, 대문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활동이 크게 인정된 것이다.

정명철 회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지원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간 저작권 위반분쟁에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

- 해당 건축사와 건축주, 삼자간 합의하는 자리 마련하여 고소 취하 이끌어 내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9월 경, 회원 간 저작권 위반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분쟁 조정 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소속 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문제가 된 사건을 이렇듯, 광주 A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와 계약을 맺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청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주가 중간에 다른 B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주게 되었으며, B 건축사사무소는 A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A 사무소는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사기)와 B 건축사사무소(저작권 위반)를 고소하였고, 고소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는 광주건축사회로 저작권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광주건축사회에서는 경찰로부터 양측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도면 파일을 받아 확인 작업에 들었다.

이후 광주건축사회에서는 A 건축사사무소와 B 건축사사무소, 건축주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도면확인결과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이 삼자간 합의를 통해 완전히 해결하면서 고소 취하를 이끌어 냈다.

정명철 회장은 이와 같은 분쟁 조정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도 회원 간의 분쟁 발생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여 회원 간의 분열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 내어 광주건축사회 회원으로서의 확실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연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신청 안내

- 오는 10월 16일까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가능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사 실무교육이 개설되었다.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 중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수강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 연계 건축사실무교육

- 1) 참관일자 : 2015. 10. 22 (목)
- 2) 장 소 : 코엑스(COEX) HALL E E1,2 / HALL E E3,4
- 3) 수강신청 일시 : 2015. 10. 7 (수) 09:00 ~ 16 (금) 24:00까지
- 4) 수강신청 사이트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
- 5) 교육내용

구분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13:00~14:40 (2H)	철강구조물제작공정 인종 및 관련기준·제도 소개 * 강사 : 김동희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의실 : Hall E E1,2	현대사회 직업윤리 * 강사 : 제정관 교수 (순국방대학교 리더십 개발원장) * 강의실 : 300호	건축설계창작물과 지식재산 * 강사 : 반재원 서기관 (특허청 주거기반사업 과장) * 강의실 : Hall E E1,2	건축경제 * 강사 : 이동현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명예교수) * 강의실 : 317호
15:00~16:40 (2H)	건축재료-건축용 도료 * 강사 : 이성곤 팀장(노루페인트 기술연구소) * 강의실 : Hall E E1,2	건축용 스테인리스강 특성 설계기준 및 적용사례 * 강사 : 김태수 교수 (한밭대 건축공학과) * 강의실 : 300호	건축사의 현실과 미래 * 강사 : 윤희경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 강의실 : Hall E E1,2	녹색건축설계를 위한 친환경자재 적용방안 * 강사 : 김정규 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강의실 : 317호
13:30~15:10 (2H)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패시브 절감 전략 * 강사 : 이병연 교수 (충북대 건축학과) * 강의실 : Hall E E3,4		건설용강재 품질관리방안 * 강사 : 김길수 박사 (동국제강 중앙기술 연구소) * 강의실 : Hall E E3,4	자연환기 계획기법 및 사례 * 강사 : 이진영 이사 ((주)한일엠이씨) * 강의실 : 318호
15:30~17:10 (2H)	목조건축의 구조 * 강사 : 김각경 대표 ((주)두항구조안전기술 사사무소) * 강의실 : Hall E E3,4		건축협정제도의 이해와 적용(2015년) * 강사 : 여혜진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강의실 : Hall E E3,4	고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적절한 공사비의 목조주택 설계 * 강사 : 송재승 대표 (건축사사무소 미추) * 강의실 : 318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 '2015 건축의 날' 행사에서 건축전문인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이 지난 10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길전 회장은 1999년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사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봉사 및 사회단체 지원,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건축사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안길전 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에서도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하며 11월 4일 11시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광주서 친선교류전 가져

- 지난 10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에서 양회 30여명 회원 교류전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와 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는 지난 10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친선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제주 강영준 회장과 광주 바둑동호회 윤익상 회장, 제주 바둑동호회 강형구 회장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전은 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에서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에 요청하여 진행된 행사로 향후 친선교류전을 연례행사로 정례화하겠다는 양 동호회 회장들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본격적인 친선대국에 앞서 오규철 프로9단을 초빙하여 지도대국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전남에서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 지난 2일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건축정책 등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지난 10월 2일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광주, 전남 건축사 40여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대 오세규 교수가 '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방안', 목포대 오양기 교수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저에너지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러 첫 번째 주제에 따른 새로운 주거문화 잠재수요 및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한 토론에는 호남권 순회포럼 위원장인 목포대 김지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달 동남권 포럼, 이달 전남권, 충청권 포럼을 완료했으며, 다음달 강원권에서 포럼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10월 1일 공포·시행

- 공동주택 600세대 미만 => 층수관계 없이 자치구 건축심의 등

광주광역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사항 개정과 그 동안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1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변경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 개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그동안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2층 이상이거나 6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층 미만이거나 6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600세대 이상은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600세대 미만은 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했다. 일반건축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경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변경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개정 공포·시행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70786번 회원알림 18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서석 |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0월 초~11월 초 주요 일정 안내

법/령/정/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12	13	14	15	16	17
			광주광역시 건축상 심사 -오후 2시 시청			광주건축문화투어(인천권)-오전 6시 광주역 출발
18	19	20	21	22	23	24
	광주광역시건축상 심사 결과 발표	전북건축사회-한국산업대2015 참관(1) 수원회원답사 -오전 8시 각 지역별 출발	전북건축사회-한국산업대전 2015 참관(2)	광주건축사회-한국산업대전 2015 참관-오전 7시 30분 광주역 출발	전남건축사회-한국산업대전 2015 참관-오전 7시 각 지역별 출발	
25	26	27	28	29	30	31
		전주시건축사회 광주건축문화탐방-오전 9시 30분 회관 앞				제16회 전북건축문화제 개막식-오전 11시 전라북도청 로비
1	2	3	4	5	6	7
		2015 광주건축인의 밤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층	제12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개막-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전북건축문화상 시상 및 전북건축인의 밤 -오후 4시부터 장소 미정	서울시청 설계자유결 건축가초청 강연-오후 2시 DJ센터 201호~204호/광주건축사윤리교육-오후 4시(동중초)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시상식-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광주건축사회 동정

- *결혼**
- 김성국 건축사 / 규성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10월 3일 (토)
- *부고**
- 윤대우 · 김은자 건축사 / 제이원 건축사사무소 · 아도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시부상 9월 30일 (수)

□ 전남건축사회 동정

- *전입**
- 정국주 건축사 / (주)유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차샘로 2-5
- *결혼**
- 심우석 건축사 / 우성 건축사사무소 딸 결혼 9월 5일 (토)
- 윤순하 건축사 / 대하 건축사사무소 장녀결혼 9월 12일 (토)
- *부고**
- 장진영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부부상 9월 4일 (금)
- 강양구 건축사 / 아트 건축사사무소 부모상 9월 17일 (목)
- 장세운 건축사 / 이레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9월 20일 (일)
- 배중수 건축사 / 한려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9월 23일 (수)
- 이강근 건축사 /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9월 26일 (토)

□ 광주·전남·전북 10·11월 지역축제 안내

- ▶ 10. 22 (목) ~ 10. 25 (일) 전주비빔밥축제 2015_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대전
- ▶ 10. 23 (금) ~ 11. 08 (일) 대한민국 국향대전 2015_전남 함평엑스포공원
- ▶ 10. 24 (토) ~ 10. 28 (수) 광주세계김치축제 2015_광주김치타운
- ▶ 10. 30 (금) ~ 11. 01 (일) 별교교막축제 2015_전남 보성군 별교읍천변, 진석리 갯벌체험장
- ▶ 11. 06 (금) ~ 11. 08 (일) 군산세계철새축제 2015_전북 군산시 철새조망대, 금강습지생태공원, 나포습지들 일원
- ▶ 11. 06 (금) ~ 11. 08 (일) 순천만갈대축제 2015_전남 순천만, 동천 일원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인구정체 및 가격상승 기대감의 약화로 향후 대규모 신축우주의 건축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증가 및 건축물 신축 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건축물 용도를 인정하고, 현행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며,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적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라.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 하도록 함(안 제14조 후단 신설).
마.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바.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조안전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복수용도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사.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아.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자.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 신설).
차.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77조의14, 제77조의15, 제77조의16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5항 신설).
파.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지이며 실제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규정 삭제함(안 제79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하. 건축협정의 효력(제77조의10), 결합건축 기간 및 효력(제77조의16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벌칙에 포함(안 제108조, 제110조).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 / '15.7.24. 공포, '16.1.25.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다목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타목)
다.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허목)
* 건축서비스법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 '15.11.10 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업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서재형
부편집인 정명환, 백재봉, 양우현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박중호, 박주현, 이종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우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신명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되어 신명나게 새롭게 펼쳐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기원해본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1,0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700,000원
- 하 단 광 고: 350,000원
- 하 단 1/2 광고: 200,000원
- 구 독 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마이다스아이티 1,200,000원
- 반석기초이앤씨 700,000원
-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가을, 햇밤 주우러 가는 길

김미송 교사
순천북초등학교

새벽까지 떨어지던 비였는데 출발하려고 보니 가을, 하늘도 바람도 청량하다. 지인의 산으로 아이들과 햇밤을 줍는다고 나서는 길에 엿저녁 비를 못 이겨 떨어진 이른 낙엽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낙엽이라고 부르기에 생김도, 색깔도 여전히 선연해서 안타깝다.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길, 밤새 내린 비로 충분히 젖어 미끄러워진 비탈길에 발이 빠지면서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붉은 알밤을 보고 아이들은 보물찾기라도 하는 낭 탄성을 지르며 정신없이 줍는다. 깎아놓은 것처럼 선이 선명하고 통통하며 반질반질한 것이 여름내 받은 햇빛을 잔뜩 머금고 있는 햇밤, 맞다.

어른들은 조금 더 산을 타고 밤나무들 아래 마르기 시작한 풀들을 낫으로 헤쳐 가며 밤을 줍는데 메고 간 망태와 바구니가 금방금방 채워졌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아래쪽에서 아이들이 더는 재미도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투정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신기하다며 재미가 들렸던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미 짐작했던 터라 그래도 예상보다 오래 잘 버텼구나 생각하며 아이들 달려라 내려왔더니 저 아래 동그랗게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슬쩍 들여다보니 저들이 나뭇 가지에 수확한 밤들을 장갑 낀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닦아내 깨끗한 바구니에 옮겨 담고 있었다. 그러다 어쩌다 놓쳐 굴러가버린 밤들을 쫓아가 주워 와서 다시 반복한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골똥하고 정성스러운지 웃음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몇 포대기를 들고 앞서 가는 아빠한테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작업을 했는지 수선을 피우며 조심스럽게 가지고 가라는 잔소리도 잊지 않는다.

적당한 수확철이 되면 감자나 고구마, 밤이든 감이든 우리 가족은 근처 텃밭으로, 산으로 함께 나선다. 잠깐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놀이가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찾는다. 찬바람이 불면 오래 가을과 풍성함으로 수식되는 "수확"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고달프고 권태로운 과정을 이겨내고 얻어지는 것임을 알고, 어떤 일이든지 쉽고 하찮은 일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이른 아침 출발했을 때 느꼈던 감성적인 가을은 돌아오면서 온몸에 내려앉은 피곤함으로 끝났다. 아빠와 함께 주워 온 것들을 씻고 말리는 두 딸들의 고만고만한 손과 말소리에 아직도 미처 잡지 못한 알밤들이 내내 걱정이다.

한장의 Photo



▲ 촬영지 : 전남 보성군 응치

가을날의 환희

가을하늘과 구름 그리고 산, 황금 들녘을 보고나니
이 기쁨의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환희에 찬 내 몸이 덩달아 덩실덩실하는 구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

책 소개



왜 우화인가, 왜 이솝인가 『이솝전집』 -유종호 옮김 / 민음사

한숙 화가

전라북도 전주시



넓은 책 한권, 먼지를 털었다. 『이솝전집』 (유종호 옮김, 민음사) 우화집이다. 우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다.'-(백과사전). 요즘 언론을 달구는 사건들을 보면 '이솝우화'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게 있다면 주인공이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이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물론 교훈을 준다는 것에는 같다. 우화 같은 세상이 주는 교훈을 우화에 빗대어 거울로 들여다보듯, 오늘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우화의 매력이다.

저자 '이솝'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시대 사람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등이 '이솝의 우화'를 사례로 들었다하니, 그의 유명세는 2천년을 이어오는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혹한 현실세계는 비슷한 모양이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솝은 358편의 우화'를 썼고, 그중 207편을 실었다. 근면하고, 감사하며, 가치 없는 것들에 희망을 두지 말라한다. 저자는 한마디로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나 동화책을 통해 어려서 한번쯤 읽어 봤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였을까, 누구나 읽기 쉽게 『이솝전집』에 실린 207편 이야기 중에 112편이 10줄 이하다. 길어야 5~6쪽이다. 숨 한번 들이키면 읽을 분량이다. 짧은 길이에 놀라고 내용의 깊이에 놀란다.

우선 등장인물들이 동물인지라 성격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용이 명료하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 하는 양치기 소년, 부지런한 개미와 노래하는 배짱이, 물속 제 그림자의 고깃점을 욕심내다 물고 있던 것 까지 잃은 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학을 초대해 접시에 밥을 준 여우가 학의 집에서 유리병 담긴 밥 때문에 당하는 이야기 등, 기억의 능선을 넘으면 더듬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책에서 유명하지 않은 몇 개의 이야기에 주목 한다.

『8 내 체면을 위해 너의 꼬리를 잘라라』편은, 뒷에 걸려 꼬리를 잃은 여우가 다른 여우들에게 자기를 따라서 꼬리를 떼어버리라고 유혹하는 이야기다.

상업광고의 상술을 본다. 그들은 매일 텔레비전에서 '날 따라해 이게 최신 유행이야!'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맛과 미'로 포장한다. 유행을 만들고 폐기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긴다.

『6 사람과 사자』편은, 사자를 목 조르는 석상을 보던 사람이 "사람이 사자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말한다. 듣고 있던 사자는 "만약 사자가 돌 새기는 법을 안다면 사자가 사람을 타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한다. 기록자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교훈이다.

『38 여차하면』편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데 멧돼지가 엄니를 갈고 있다. 이를 보던 여우가 "왜? 가느냐"고 묻자. 멧돼지는 "위험이 닥치면 엄니를 갈 시간이 없다, 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좋으련만...

『70 희망의 연기』편은, 배고픈 갈가마귀가 무화과나무에 앉아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다가 불박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 "희망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잘못이다. 희망은 속임수일 뿐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 여기서 '희망'은 '미래'를 의미한다. 오지 않는 미래에 속아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는가. 현실을 챙겨라. 다 잊는다 해도 이 한편의 우화를 읽는다면 『이솝전집』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화 같은 일이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선장이 아니 바에야 내리라는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내릴 수 있던 말인가. 어떻게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승객들을 뒤로 하고 혼자만 도망칠 수 있던 말인가. 총축, 과적, 재난훈련 무... '관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우화 같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선주나 감독기관이 같은 업계사람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 구조적문제. 모두가 하나같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참사가 벌어졌다. '이솝의 우화'를 읽다보면 세상사와 참 많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훈과 지혜가 가득한 보물창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이솝전집』은 온가족이 밥상에 모여 둘러가며 읽으면 좋을 책이다. 밥상위의 간식처럼 쉽게 손이 가는 책이다.

'207편'의 우화 같은 세상에 진정한 지혜와 교훈을 던지는 책이다. 미래에 속지말자, 무화과가 나무에 앉아 익기를 기다리다 불박이가 된 갈가마귀 같은 인생이 되지는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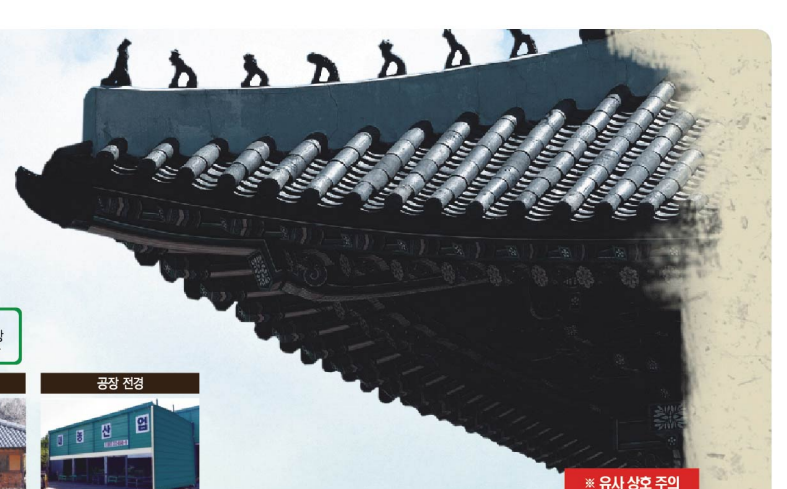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 공정 경영: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 공장 직거래: 주택 개·보수, 원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 APT, 주택 리모델링
- 배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면



* 유사 상호 주의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DAE NONG

☎ 062)373-6548, 6549
374-6585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제 12 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The 12th 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2015. 11.04(수)~11.07(토) / 4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개막 : 2015. 11. 04(수) 오전 11시

초대의 말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1회 문화제는 전국 3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광주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건축·도시문화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건축·문화의 미래를 한눈에 내다보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이 지역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건축 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축과 도시를 사랑하는 모든 건축인들의 창조활동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들을 위한 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세계 속의 건축문화도시로 가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안 길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정 명 철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엄 환 석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장 남 승 진



■ 일반 전시행사

2015.11.04(수)~11.07(토) 4일간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시카고, 건축·도시문화 특별 사진전
-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우수학생작품전 -광주건축사 회원전

■ 공모전 입상작 전시행사

2015.11.04(수)~11.07(토) 4일간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광주 건축공모전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2015년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 건축문화심포지엄

2015.11.06(금)오후 2시 / 김대중 컨벤션센터 201호~204호

-강연자 : 유결 (주)아이파크 공동대표 주제: 미래의 건축

■ 건축체험교실

2015.11.04(수)~11.07(토) 4일간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건축인의 밤

2015.11.03(화)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연회장

■ 건축민원상담

2015.11.04(수)~ 11.07(토) 4일간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기타행사

-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전시
-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전시
- 경관취약지구 개선사업
- 우수주거문화전시

- 주 최 광주광역시
- 주 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후 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 지역방송국 및 언론사
- 문 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중흥동694-10) 4층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E-mail : gjkira@empal.com